

## 제 65 강

# 위대한 대제사장 - 예수 그리스도

■ 성경본문 히브리서 1:1-13:25 ■

### 프렐류드(Prelude)



바울이 편지를 보낸 도시

오늘 우리는 사도바울의 긴 서신들을 지나 색다른 음률과 사상을 담은 히브리서와 마주합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서 ‘어법’(語法), 사상, 내용을 독특한 방법으로 전개하는 새로운 스타일의 성경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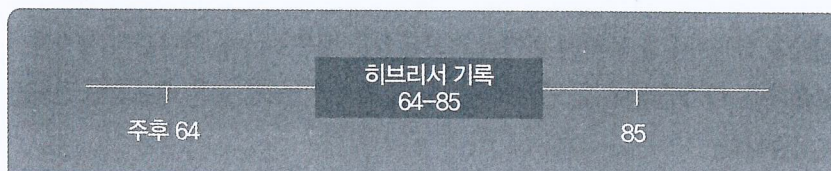
그리고 저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자는 ‘유대인’이 분명했으며, 구약을 통달한 고도의 지식과 풍부한 사상을 가진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대속하시고 중보하신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했던 진실한 그리스도교 신자였습니다.

기록 시기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극에 달했던 주후 80년경으로 추론합니다.

## I. 주요 내용

1.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히브리서 1:1-7:28)
2. 예루살렘 성전과 하늘의 장막(히브리서 8:1-10:14)
3. 믿음의 실상(히브리서 11:1-40)

### 〈연대표〉



## II. 시대적 배경

히브리서 13장 7절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구절은 이미 왔거나 다가올 박해에 대비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주후 64년경 로마 제국의 네로(Nero) 황제의 박해와 주후 85년경 자신을 ‘신’(神)으로 둔갑시켜 경배를 강요하던 도미티아누스(Domitianus) 황제의 박해 그 중간인 주후 8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들은 이 박해를 겪었으며(히 10:32), 이때 많은 신자는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혼란과 좌절 그리고 문란한 생활에 젖어 들었습니다. 이때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원한 대속자시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장막을 소개하면서 복음 위에 굳게 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믿음을 일깨우고 믿음으로 살다가 먼저 간 선조들의 신앙을 따라 경주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III. 말씀과 해석

#### 1.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히브리서 1:1-7:28)

고대 유대교 전통에서는 천사와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자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천사들은 “... 그의 사역자들을... 삼으시느니라”(히 1:7)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히 1:14)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미가엘(단 10:13), 가브리엘(단 8:16), 라파엘(토비아 7:8)은 대표적인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의 사자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 이후 제사장은 율법과 성전제사의 중심점이 되었으며, 국가 체제가 무너졌을 때는 대제사장을 정점으로 하는 유대교가 유대인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특히 성전제사와 지성소(至聖所)에 들어갈 수 있었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무엇보다 죄를 자하는 속죄제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사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창조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증언합니다(히 1:2-4).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들보다 높고 위대하신 ‘대제사장’(大祭司長-High Priest)으로 증언했습니다(히 3:1, 4:14). 유대교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택한’(히 5:1) 아론(히 5:4)에게서 시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히 5:6)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은 동생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히브리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규례였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이스라엘의 첫 조상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살렘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창 14:17-20; 히 7:1)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바쳤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었습니다(히 7:2).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히 7:3). 멜기세덱의 계보는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전 인류를 품는 제사장의 반차입니다(히 7:4-10).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에 자기 몸을 드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

하신 대제사장이셨습니다(히 7:27).

## 2.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스도의 몸(히브리서 8:1-10:14)

예루살렘 성전은 1. 장막 뜰, 2. 성소(등장대상과 진설병) 3. 지성소(법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히 9:1-5). 그리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일 년에 한번 들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히 9:7; 레 16:6-34). 지성소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장소였으며,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온전한 장막이 올 때까지 잠정적인 것이었습니다(히 9:10).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온전한 장막”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 온전한 장막은 손으로 지은 장막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 시려고” 바치신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히 9:26, 10:5-10).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한 장막이 되시고 그가 흘리신 피를 힘입어 우리는 성소,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히 10:19).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양이나 염소가 속죄 제물이었으나, 온전한 장막에서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으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자신을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단 한 번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Once for all)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희생이었습니다.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몸은 예루살렘 성전을 폐하고 친히 하늘의 장막이 되었습니다.

## 3. 믿음의 실상(히브리서 11:1-40)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 합니다. 특히 11장 1절은 믿음의 본질을 규명해 주는 요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구절을 공동번역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실상’(보증)과 ‘증거’(확증)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지니는 두 가지 차원을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첫째로 믿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의 근거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미래를 보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매이거나 현재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나타난 목표를 바라보며 달려갑니다(빌 3:12-16). 이 미래의 실상(實像, reality)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둘째로 믿음은 영원한 것의 보장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서 40절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다간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믿음의 족보’(히 11:2-40)라고도 합니다.

믿음의 족보

이름	믿음의 행함
아벨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
에녹	
노아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방주를 준비함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
사라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음
이삭	장래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
야곱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
요셉	임종 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과 자기 뼈를 가나안에 옮길 것을 명령
모세	최악의 낙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좋아하였고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남
라합	이스라엘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이들은 각기 다른 모양으로 살았으나, 한 가지는 동일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히 11:13-14) 지상에서는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나그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삶의 여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장막에 초청하셨으며, 이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사람들을 믿음의 경주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입니다.

#### IV. 성찰과 나눔

1. 히브리서 저자는 ‘무명’(無名)이지만, 바울에 버금가는 그리스도교 사상가요 신학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시대를 분별하는 혜안이 있었으며 그 속을 꿰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계시를 분별하는 신앙의 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그는 구약의 역사와 율법을 통달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主) 되심을 믿고 생명을 바쳐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2. 히브리서는 펄박 속에서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간 아론의 계보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자신의 몸을 드려 하나님과 인류 사이를 이어준 대제사장 예수만이 영원한 장막임을 증언하고, 이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을 지상의 나그네로 표현하였습니다.

3. 신학은 이 삶을 ‘종말론적 순례의 여정’이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숨이 있는 한 땅에서 살지만, 눈과 마음은 이 역사, 이 삶 저편에 약속되어 있는 영원한 장막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중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 지상에서 열심히 살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종말론적 순례’의 여정입니다.